

2019년 11월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주) 문화방송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요

1. 회의개최

-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3시
- 장 소 : 상암MBC 경영센터 대회의실
- 방송사 참석자 : 11명
- 시청자위원 참석 명단 : 7명
 - 이규정 위원장 /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전경란 부위원장 / 동의대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교수
 - 김수정 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편집위원
 - 박성현 위원 /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 오수원 위원 / 법무법인 민 구성원변호사
 - 이상길 위원 / 동아방송예술대 방송예술융합학부 교수
 - 정석희 위원 / 방송칼럼니스트
- 시청자위원 불참 명단 : 3명
 - 박진수 위원 / (주)클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사단법인 점프 신사업팀장
 - 윤여진 위원 / (사)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홍성재 위원 / 한성대학교 창업R&D센터 교수

2. 의견제시, 시정요구

구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보도 보도제작	<뉴스데스크>, <100분토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혐오표현 쓰는 정치인 발언 문제지만,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아', '양현석 전 YG대표 수사상황, 이렇게 관심 쏟을 일인가?'
	교양	<실화탐사대>, <MBC스페셜>, <MBC다큐프라임>, <PD수첩>
	예능·오락 스포츠	<같이 펀딩>, 연예인 관련 보도 및 <섹션TV 연예통신>, <전지적 참견 시점>, <편애중계>, <문화사색>, '먹방 프로그램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 시청자위원회 의견 발표 및 본부·국장단 답변 ◆

이규정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최승호 사장님 오셨는데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승호 사장 :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꼭 할 얘기가 있으면 끝나고 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먼저 드라마, 예능, 라디오, 스포츠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전경란 위원님.

전경란 위원 : 안녕하세요? 전경란입니다.

연예인 관련 보도 때문에 SBS에서는 특별히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관련 규제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디어와 채널도 많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가세하면서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시청자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 수 경쟁을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윤리에 맞는 건가 하는 기사내용까지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연예인 최진리 씨 죽음을 계기로 악성 댓글 문제까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 신문사는 단순히 악성 댓글 문제만이 아니라 “악플과 중계식 보도 ‘가학의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서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언론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최진리 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미디어뿐만 아니라 언론인과 언론 소비자 공동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많은 매체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은 매체
종합일간지 지면 및 온라인 뉴스	국민일보 27건 서울신문, 세계일보 72건 한국일보 86건	한겨레* 2건 문화일보* 3건 경향신문* 8건 동아일보 10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11건
경제지 지면 및 온라인 뉴스	머니투데이 40건 서울경제 83건 한국경제 144건 매일경제 149건	아시아경제 22건 헤럴드경제 24건 아주경제 31건
방송사 TV 및 온라인뉴스	YTN 32건 MBN 74건	KBS, SBS, 채널A, 연합뉴스TV 0건 MBC, TV조선 1건 JTBC 5건
연예-스포츠 매체 뉴스	스포츠조선 174건 일간스포츠 192건 엑스스포츠뉴스 203건 마이데일리 224건 헤럴드POP 240건 OSEN 241건 뉴스엔 254건	스포츠월드 35건 enews24 64건 스포츠경향 84건 텐아시아 91건 스포티비뉴스, 스포츠서울 94건 스포츠동아 117건 MK스포츠 121건 TV리포트 124건 스타뉴스 148건
통신사 및 유사 언론 보도량	위키트리 56건 뉴스1 100건	연합뉴스 6건 뉴스스 11건 인사이드 24건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많은 매체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은 매체
종합일간지 지면 및 온라인 뉴스	국민일보 27건 서울신문, 세계일보 72건 한국일보 86건	한겨레- 2건 문화일보- 3건 경향신문- 8건 동아일보 10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11건
경제지 지면 및 온라인 뉴스	머니투데이 40건 서울경제 83건 한국경제 144건 매일경제 149건	아시아경제 22건 헤럴드경제 24건 아주경제 31건
방송사 TV 및 온라인뉴스	YTN 32건 MBN 74건	KBS, SBS, 채널S, 연합뉴스TV 0건 MBC, TV조선 1건 JTBC 5건
연예-스포츠 매체 뉴스	스포츠조선 174건 일간스포츠 192건 엑스포츠뉴스 203건 마이데일리 224건 헤럴드POP 240건 OSEN 241건 뉴스엔 254건	스포츠월드 35건 enews24 64건 스포츠경향 84건 텐아시아 91건 스포티비뉴스, 스포츠서울 94건 스포츠동아 117건 MK스포츠 121건 TV리포트 124건 스타뉴스 148건
통신사 및 유사 언론 보도량	위키트리 56건 뉴스1 100건	연합뉴스 6건 뉴스스 11건 인사이드 24건

이 표를 보면 MBC는 최진리 씨를 이슈거리로 소비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지마저도 선정적인 보도, 연예인에 대한 언어폭력, 심지어 ‘저질 중의 저질, 악질 중의 악질 보도’로 분석보고서에서 평가될 정도로 그런 무책임한 기사를 생산하는 와중에 MBC가 나름의 원칙을 지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섹션TV 연예통신>에서도 최진리 씨의 자살 뉴스를 전하며 도를 넘어선 악성 댓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가 최진리 씨의 생전에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사화하고 악성 댓글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유도해왔다는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섹션TV 연예통신>에서도 악성 댓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을 악성 댓글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저널리즘의 문제를 한 번 더 지적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파방송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인터넷 연예뉴스의 수준이나 허위여부에 대한 준거가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상파방송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한 단계 올라선 혹은 차원이 다른 연예정보와 대중문화 소식을 다루어야 하는 새로운 책무가 생긴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년 넘게 방송되어 온 KBS2의 <연예가중계>가 잠정 중지 결정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는 소식은 연예정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다른 포맷이나 내용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섹션TV 연예통신>의 내용을 한 달 정도 살펴본 내용에 대해 언급하자면, 983회(10/31)의 ‘뜨거운 사람들’ 코너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하나경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을 시작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선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당사자인 하나경 씨를 소개하면서 ‘파당녀’란 표현으로 호명했는데, 물론 MBC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언어를 재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984회(11/7)에서도 임세령 씨가

‘완판녀’, ‘한정판녀’로 언급되는 등 이런 식의 여성에 대한 호명은 단순히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을 둘러싼 또 다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된장녀’, ‘김치녀’,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는 단순히 관련된 단어가 나열됨으로써가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과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작동하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칭 문제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코너인 ‘영화B평 <영화를 누리자>’를 통해 <조커>, <82년생 김지영>,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와 같은 최근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대중문화 전문가들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983회 <82년생 김지영>은 영화의 내용이 어찌면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성의 대결처럼 보일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화가 지닌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줌으로써 논란이 되는 자극적인 소식이나 흥미 위주의 연예보도 보다는,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해줄 수 있는 코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뉴스를 비롯하여 남녀 진행자가 함께 짝을 이뤄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전문성을 지닌 일숙한 남성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조합이 사실상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언론사와 사회의 인식이 바뀔 것으로 그 조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섹션TV 연예통신>의 경우는 진행자가 갖춰야 할 발성이나 발음이 훌륭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진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역시 의문이 들어서 여성 진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뉴스,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시사적인 뉴스, 지식위주의 뉴스만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적인 흥미를 만족시켜주는 뉴스도 훌륭한 뉴스이고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정보,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가벼운 지식도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섹션TV 연예통신>이 그러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전경란 위원님이 심층적인 비평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희 위원님.

정석희 위원 : 안녕하세요? 정석희입니다.

파일럿 방영 당시에 많은 관심과 비난, 지적을 동시에 받았던 <공부

가 머니?>가 정규편성 이후 시청자 의견을 수용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1회 출연자 최정원 씨 부부는 tvN 김유곤 PD의 <동지탈출>에 출연했을 때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머니?>에서는 수위 조절을 잘 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가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2회 출연자 김정화·유은성 부부의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은 존경심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노는 것도 공부라고 여기는 아빠 유은성 씨와 엄마들 사이에서 정보를 듣고 전전긍긍하는 김정화 씨의 소소한 대립이 있긴 하지만 김정화 씨가 아이와 놀이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장면은 TV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 반갑게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컨설턴트는 파일럿 때도 문제가 되었던 분이죠. 여전히 그 때와 다름없이 ‘줄넘기도 사교육을 한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줄넘기가 중학교에 가면 수상하고 연결되고 특목고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 시키는 게 맞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일부 사례의 일반화인거잖아요.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좀 더 조심하길 바랍니다.

3회 방송에서는 임호 씨 부부가 다시 출연했습니다. 지난 여파를 무마시키려는 느낌이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그 때 수험생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 수험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은 유익했습니다.

<편애중계> 1회는 파일럿과 다름없는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2회에는 시청자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일반인과의 소통을 확장시켜서 시청자와의 교감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2~3회 시청이후에 방송이 재미있었다는 반응이 주변에서 많았습니다. 바로 <편애중계>가 가야 될 모델 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에 심사위원으로 연예인 3명이 출연했는데, 굳이 그 분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정규편성 된 프로그램으로 <언니네 쌀롱>이 있는데요, 앞서 두 프로그램과는 달리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파일럿은 인기 아이들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는데, 인턴이 배제된 정규방송은 오히려 화제성은 떨어졌죠. 요즘 뷰티 프로그램은 TV도 많지만 유튜브들도 많아서 팁이 많이 제공됩니다. <언니네 쌀롱>에서는 유익한 팁을 얻을 수 없었고 한예슬 씨의 역할도 불분명합니다. 조세호·홍현희 두 개 그맨으로 인해 산만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는데요, 2회 부터인가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예인들은 스타일링과 메이크오버할 기회가 많은데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 해 줄 필요가 없고, 한예슬 씨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연예인들이 본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사연을 받아서 메이크오버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스타일링 조언을

해줘야 할 일반인에게 도움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MBC홈페이지에서 <언니네 쌀롱>, <편애중계>, <공부가 머니?> 클립
보고 댓글달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의 참여가
개인 홈페이지보다 저조해서 하나마나한 이벤트인 것 같은데 시청자
의 적극적인 관심유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
을 흔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산다>에서 박경 씨와 연결하는 게 있었고, <놀면 뭐
하니?>에서 김이나 씨 라디오 진행하는 데 유재석 씨하고 하는 것,
이렇게 라디오와 예능이 합을 맞추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
다. 라디오 진행자를 소개하는 기회도 되고, 박경 씨도 잘하더라고요.

이규정 위원장 : 네, 정석희 위원님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
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이상길 위원 : 정석희 위원님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저
는 <편애중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편애중계>는 TV에서 관찰예능이 대세로 자리 잡은 시대에 다른 예
능 프로그램과 차원이 다른 신선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
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관찰대상의 종류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자에게 다음 회의 내
용은 무엇일지 기대하게 만드는 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회 차의 '지인 3인방 소개팅 대작전'에서도 시청자들의 인기가
높았고, 2회 '꿀찌고사1, 행복한 꿀찌들의 대결'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등, 기대 이상으로 재미를 유발했
습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꿀찌들이나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갖는 편견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관찰대상 학생의 부모도 아들이 이
렇게 모든 노래를 잘 알고 있는지 몰랐던 재질이 있어 시청자들을 깜
짝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 방영할 때는 약간 불안하게 진행되
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편애중계>는 MC들의 콤비가 안정되고 신
뢰감을 주고 있으며 1,2회 모두 캐스터 및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보
다 너무 지나치면 프로그램의 균형성이 깨져 시청자들이 지루해 하는
면이 생겨나는데, <편애중계>는 1조에 2명씩 총 3조의 캐스터와 해설
자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잘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김제동과 함께 야구 측 해설을 맡은 김병헌의 경
우 신인으로서의 순수함과 신선미를 더해줌으로써 새로운 스포츠 예
능인을 발굴했다는 느낌마저 갖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선 관찰대상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수준이 열세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가 있을 때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이 대상들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약자로서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회 차에서 소개팅하는 지인들 중 한 명이 너무 산만하고 격이 낮은 질문을 해서 시청자들이 처음 보는 그 분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줄 개연성마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회 차에서도 아이들이 쉬운 문제를 틀리는 동안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면 자기 자녀들이 쉬운 문제를 맞히지 못할 때마다 부끄러움과 속상함이 실제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면 훌륭한 예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편애중계>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박진수 위원님은 늦으시고 홍성재 위원님은 참석을 못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은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 ‘테이’ 편에서 매니저와 대화를 끝내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우유와 시리얼이 담긴 그릇을 옆질러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대화에 몰입하고 있다가 옆지른 우유를 청소기로 열심히 청소하며 청소기에 감탄하는 모습이 어색했다고 하셨습니다. PPL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화사색>은 일요일 아침에 문화관련 소식을 다채롭게 소개해주고, 전문가들의 새로운 의견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주는 콘텐츠를 즐겁게 시청하면서 방송시간대가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송 마무리에 본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폐지보다는 변화하는 콘텐츠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해석해서 문화영역을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방송을 하는 것이 어떨것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PD수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검사 집단과 금융계와의 결탁 고리를 낱알이 파헤친 <PD수첩> 팀에게 지원을 드리고 싶다, 힘들고 복잡한 구조의 금융사기 구조를 사건의 발생 흐름에 따라 잘 설명하고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 방대한 취재 분량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앞으로도 <PD수첩>이 지속해서 문제를 밝혀내고 검찰 집단 스스로부터 자성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박진수 위원님이 항상 의견 제안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중 요새 필수 프로그램인 먹방은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지상파에서는 SBS 백종원 씨 프로그램 말고는 참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도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구해줘! 홈즈>나 <공부가 머니?>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접근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먹방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통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홍성재 위원님은 <같이 편딩>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크라우드 편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예능, <같이 편딩>이 13화를 끝으로 시즌 1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편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담고 싶다고 해서 우선 <같이 편딩>이 실제 아이템 창출을 하는 동시에 예능의 재미도 추구해야하는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작진의 높은 실험정신과 새로운 형식의 예능이라는 모험을 추구한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라우드 편딩이라는 것을 새롭게 풀어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송 사례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원래 크라우드 편딩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데 너무 성공 위주로 방송한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방송에서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매한 고객CS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같이 편딩>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각종 배송일자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이 많습니다. 해피빈의 인터페이스 또한 이러한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에 시청자들이 게시판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제품을 다루는 만큼 고객CS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같이 편딩> 시즌2가 진행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간의 실험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했고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편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이자 고객인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잘 응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권석 본부장님 답변해주시죠.

권석 예능본부장 : 네.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1000회를 맞이하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연예계 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인터넷 매체, 유튜브, 아침방송 어디든지 연예계 뉴스가 범람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프로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섹션TV 연

예통신>는 예능계의 <뉴스데스크>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도 프로그램 못지않게 공정성이나 진실성, 사회에 주는 메시지, 그런 덕목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리, 최진리 씨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상파가 지켜야하는 방송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별명이나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익숙한 표현이고 시청자들이 많이 아는 표현으로 방송을 했지만 그런 호칭이 갖는 의미와 배경에 대해 좀 더 고민할 것입니다.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섹션TV 연예통신>이 나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단순정보 전달에서 그칠 게 아니라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이야기뿐만 아니라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 가요에 대한 재조명과 같은 기획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일럿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 개 프로그램이 10월 말부터 정규화 됐습니다. <공부가 머니?>는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정규방송에서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너무 자극적이거나 사교육을 조장하고 불안감을 주는 것을 멀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패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너무 이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있었던 것을 시청자들에게 지적 받았습니. 좀 더 유념해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공부를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니네 쌀롱>은 지적하신 게 맞고요, 시청률도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때에 비해 고쳐서 다시 보완한 게 여섯 개 항목이 됩니다. 제작진에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이니깐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보완할 생각이구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셀럽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출연시키고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뷰티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니네 쌀롱>은 시청률은 저조하지만 PPL쪽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애중계>는 정규화 된 파일럿 3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BC다운, MBC색을 가진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출연, 일반인을 응원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이니깐 그러한 장점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예인 때보다 훨씬 더 주의해야 하는 면이 있고, 제작하기도 힘듭니다. 프로가 아니다보니까 언제 변심할지 모르고 찍어 놓고 컴플레인도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장점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PPL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작진뿐만 아니라 담당하는 솔루션부와 의논을 해서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고급스럽고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같이 편딩>은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2월에 시즌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좋은 편딩으로서 성공적이었고 지적해주신 것처럼 실제 아이템 창출 과정과 함께 재미요소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점들 중,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조명하는 부분이나 고객CS에 관련된 편리성 문제는 시즌2에서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먹방은 너무 많아 일부러 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히 다르게 보일 솔루션이 있으면 분명 매력 있는 소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쪽을 찾고 있습니다. 달리 접근할 게 있을지, 박진수 위원님의 의견도 PD들과 잘 공유하겠습니다.

박성현 위원 :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먹방을 많이 비판했던 1인으로서 저는 MBC가 먹방을 안하고 있어서 기쁩니다. (웃음)

권석 예능본부장 : 먹방도 있지만,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먹으려 갈 수 있고, 이영자 씨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도 가수 화사가 자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잘 녹여내는 먹방은 부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근행 본부장님.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박진수 위원님이 <PD수첩>과 <문화사색>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PD수첩> 검사범죄 1,2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검찰을 비롯한 그들의 권력이라든가, 거악에 대한 고발 부분은 <PD수첩>의 본령이기 때문에 개별 아이템보다는 구조적인 악에 대한 것. 이런 거악에 대한 고발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템 선정이나 PD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검찰' 방송과정에서는 저희 보다는 독립 언론 '뉴스타파' 쪽에서 온라인보도를 했던 것이고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2차 협업을 통해 2부작을 방송했습니다. 내외를 불문하고 언론이나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면 협업방식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검찰집단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사색>은 장수 교양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이고 우리사회 교양을 키운다는 프로그램인데요, 14년간 유지되다가 여러 가지 내부 사

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도 아쉽습니다. 제작과 관련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는 시청률과 제작비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상황이 좋아지면 공영방송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소양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인 정보, 소양을 다루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복귀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고맙습니다. 이어서 편성, 보도, 보도제작, 시사교양 분과에 대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위원님.

박성현 위원 : <실화탐사대> 55회, 56회 2회를 다루었는데요, 55회의 두 꼭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2개의 실화 전부 우리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청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취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화의 경우 신생아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사건, 두 번째는 어린이 실종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뉴스로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취재해서 시청자들에게 이 범죄행위가 어떻게 처벌되고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각성시켜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단지 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개인 가정사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입양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다른 시절입니다만, 70년대 실종 아동들을 어떻게 고아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장사를 했나, 이러한 당시의 현실과 실태를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 스토리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더 주목했던 입양장사의 실태를 언급한 측면은 짧게 지나간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55회에서 다룬 2개의 실화는 모두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작할 때 메인 MC가 ‘눈물 관리 잘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점이 걸끄러웠고, 진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마치 연예 프로그램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C가 계속 습관적으로, 본인은 공감해서 그렇겠지만 ‘아이고 참’ 합니다. 선입견일지 모르겠으나, 예능에서 나오는 리액션 같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56회 두 번째 실화는 매우 공감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는 좋은 내용이었지만, 56회 첫 번째 실화는 의아했습니다. 두 번째 실화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김치냉장고 화재사고’를 다루었고, 이 회사가 어딘가 궁금했는데 시청자게시판을 보니까 전부 님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확인해봤습니다. 얼마 전 전화하신 분이 님체를 사용

하고 있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도 컸고 그러한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회사 측에서는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정말 좋은 내용이었고 공익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보도나 <실화탐사대>에서 관심을 갖고 후속 취재와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6회 첫 번째 실화 '채팅에서 만난 여자, 천사인가? 악마인가?' 편은 의아했습니다. <실화탐사대> 처음 시작할 때 의견서에서 비판했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장면을 넣는 실화를 다룬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용은 1급 장애를 가진 남성과 채팅으로 만난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프니까 필리핀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귀신 쫓는 목사를 만나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에게 억대의 돈을 주고 치료를 받게 했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알아보니 남편의 형제들과 아내가 재산다툼을 하고 있더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한 가정 내 재산다툼에 대한 문제인지, 광신적인 신도 여성이 남편을 귀신 쫓는 목사에게 데려가서 죽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억대의 돈을 준 사기사건이란 것인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취재를 한 것인지 취재목표, 제작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단지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또한 4분 40초~50초 사이에 나왔던 문제의 장면은 고인이 된 환자가 항의할 수도 없는데 고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출연시켰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 화면이지만 옷을 벗은 상태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욕창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낸 장면은 굉장히 난감하고 황당했습니다. 고인이 된 환자의 뜻과 상관없이 방송된 장면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그리고 존엄성의 문제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3회 두 번째 실화 '위험한 장난, 기절놀이'에서 피해자 학생을 돕겠다는 글이 시청자게시판에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시청자에게 답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MBC스페셜>은 823회~824회에 걸쳐 '부마항쟁 40주년 특집 1979'(2부작)를 했습니다. 1부 '나는 저항 한다'를 잠깐 보면서 재연드라마인 가 했습니다. 2부 '그는 왜 쏘았는가?'는 끝까지 보고 1부를 다시보기로 시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큐드라마의 형식을 띄면서 그동안 등한시했던 부마항쟁에 대해 본격적으로 취재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실제 당시 사건 참여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생생하게 극화해서 교차 편집하여 보

여주었기 때문에 흥미롭고 생생한 역동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큐드라마 형식의 부마항쟁 특집은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 -물론 책에는 나왔습니다만-를 방송에서 다시 보여줬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전두환이 어떻게 부마항쟁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고 다르게 대처했는가, 둘의 대처방식 차이도 선명하게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탐나는TV>에서도 다루면서 좋은 언급을 하더라고요. 최갑순 씨, 옥정애 씨 두 여성의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6.25전쟁과 같은 옛날이야기를 생생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을 잘 활용한다면 <응답하라> 시리즈의 참혹한 버전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MBC스페셜> ‘부마항쟁’ 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보니까, 2부작에 걸쳐 젊은 세대들이 집 문제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취업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롭게 접근한 다큐가 있더라고요. <MBC스페셜>에서 호평 받은 다큐멘터리를 재방송에서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정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수원 위원님.

오수원 위원 : 오늘 의견은 방송된 내용 자체 보다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과 관련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영화배우 김의성 씨와 기자 주진우 씨가 공동MC를 맡고 있는데요, 시청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공동MC가 꼭 필요한지 모르겠고, 특히 MBC 기자도 아닌 주진우 씨가 왜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볼 때마다 공동MC라는 김의성·주진우 씨는 진행되는 중간에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멘트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회성 보도를 지양하고 각종 비리와 부패 문제를 연속극처럼 심층 취재하여 보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징을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해 방송하면 그 자체로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 역할을 찾기 어려운 영화배우와 타 매체의 기자를 공동MC로 기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회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중에서 MC들 각각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보도를 보면 주진우 기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회당 600만원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과연 그가 방송 제작과 관련해서 이만큼의 돈을 받을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프로그램에 제작되는 비용에 비례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이 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비용을 들여서 영화배우나 타 기자에게 공동 MC를 맡겨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 돈을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한다면 더 훌륭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정 위원장 :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수정 위원님.

김수정 위원 : <뉴스데스크> 관련해서, 첫 번째는 <뉴스데스크>(10/28)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개의 꼭지였는데요, 마지막 기자의 멘트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스스로 혐오표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멘트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이 심각하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화제성과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보도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언론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혐오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 예민해졌으면 좋겠고, 자체적으로 뉴스 팀에서라도 자제하여 덜 보도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자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양현석 전 YG대표가 얼마큼 보도가 되고 있었나, 이것을 추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 번 볼 때마다 이 꼭지가 보도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양현석 대표 수사 장면이 왜 또 나오지? 오늘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 다음은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 스타일은 바뀌고 있고요. 비슷한 포맷으로 카메라가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자꾸 보도되고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10월 중순부터는 3번, 11월에는 6일, 7일, 9일, 10일, 11일, 5일 연속해서 한 꼭지씩 등장했던 거죠. 조사를 받고 나오고 오늘 조사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내일 또 조사가 들어갈 거다, <뉴스데스크>에서 예고보도까지 됐는데요, 꼭 볼만한 사안이었나 의심이 들었습니다. 양 전 대표와 관련한 내용 대부분이 수사상황을 스케치하는 내용이었고 카메라는 계속 출석모습을 추적해서 비추는 모습이 반복되었는데요, 정말 이 사안이 아젠다를 키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도가치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100분토론>(10/22) 20주년 특집 ‘공정과 개혁을 말하다’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고 들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의성이 좋았고 프로그램 자체에 재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특히 시민 패널들이 출연해서 정치인들과 직접 대담을 나누며, 질문 한 번

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2시간 안에 이 프로그램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진행자의 빠듯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던 상황이 몰입감을 더했고, 유튜브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유 있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로 참석한 청년 패널의 역할과 질문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시민 패널의 질문내용보다 조금해 보입니다. 준비한 내용을 빨리 전달, 이 역할을 하고 빨리 빠져야겠다는 조급한 모습, 토론에 차분함과 노련미가 덜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대화하는 내용에 대해 '나는 어떻게 느꼈고 어떤 의견을 가진다'는 대담에 녹아들어가는 대화를 함께 했는데, 질문자들은 준비한 내용만 빨리 전달해야겠다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이 대담에서 어떠한 내용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못하는지, 청년대표로 나왔을 때 어떤 것을 제시함에 있어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 패널처럼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모습이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획은 시의에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정 위원장 : 고맙습니다. 윤여진 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참석을 못하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BC다큐프라임> '혁신로드 1,2부'(352회, 353회)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MBC다큐프라임>은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2부로 제작한 '혁신로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유럽의 핀란드, 프랑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산업과 정부 그리고 대학이 서로 융합하여 혁신을 통한 변화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핀란드 변방의 스타트업, 영상 콘텐츠 사업, 제조의 자동화 사업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뤘는데, 그 혁신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미디어가 깊이 있게 취재하여 보여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산성본부장뿐 아니라 정부관계자와 노동계인사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MBC다큐프라임>을 매주 해외취재를 통해 새롭고 깊이 있게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시간대도 일요일 아침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

이 오히려 시청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로드’를 다른 시사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우리의 문제로 재조명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이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뉴스데스크>의 단독 기사가 돋보입니다. 특히 이춘재 사건 당시 경찰의 문제를 단독으로 집중보도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경찰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묻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뉴스데스크>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사회적 적폐에 대해 지속적인 취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부장님과 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까. 이근행 본부장님.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박성현 위원님이 <실화탐사대>와 <MBC스페셜>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화탐사대>는 재미있는 실화,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사건 실화, 감동적인 실화들이 함께 아이টে으로 나가는데 초기에 너무 흥미위주나 자극적인 것에 대해 지적해주셨고, 저도 프로그램 담당 관리 PD들에게 프로그램이 너무 자극적이고 흥미위주로 진행해서 부정적인 문제가 고착되어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래에 모니터 하는 기간에는 재방송을 고려할 만큼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아이টে들이 많이 방송됐습니다. 다만, KBS2 <동백꽃 필 무렵>이 인기가 높아 동 시간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টে 관련 조율은 지금도 하고, 내년에도 프로그램의 방향,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이면서 감동적이고 따뜻한 아이টে을 많이 하도록 이야기 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더 뉴스성이 강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아이টে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도가 필요하다면 보도에서 짧은 리포트도 하고 유관 프로그램과 협조를 하거나 이슈를 확대해서 시청자들이 더 정보를 얻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게시판에 해당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공지사항으로 올렸습니다.

<MBC스페셜> ‘부마항쟁 40주년 특집 1979’는 극화되어서 40주년 기념 계기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두 시청하지는 못하셨겠지만, 10월 달에 1부는 5번, 2부는 3번 재방송했습니다. 재방송과 관련해서는 <MBC스페셜>이 화제작이나 대작을 못 낸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성과 있는 기획들,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내용이 좋은 아이টে은 같은 시간에 재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이브 된 제작비를 재투자 하는 쪽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연간 50회에 이르는 시간을 모두 다른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내년 예산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방침을 잡았습니다.

최승호 사장 : 다큐드라마가 괜찮던가요?

박성현 위원 :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이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일본 육군사관에 있다가 독립운동을 간 3.1절 100주년 특집 <마지막 무관생도들>, 그것도 2부작이지 않았습니까?

최승호 사장 : 같은 PD가 만들었어요.

박성현 위원 : 같은 PD군요, 좋았거든요.

최승호 사장 : 원래 이 작품을 만든 PD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10.26 사건'을 재연해서 만들었던 PD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요, 이번에 제작한 다큐에 대해 호평을 하시니 다행입니다.

박성현 위원 : <탐나는 TV>에서 그 PD님이 인터뷰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일본군에서 독립운동가가 되신 것도 다뤘는데 같은 분인지 몰랐네요. 이렇게 좋은 다큐드라마가 나올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도 있나요? (웃음)

최승호 사장 : 아마 비용이 더 들었을 거예요.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비용이 2배 정도 더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 많이 좋게 보셨다고 하는데 시청률 데이터라든가, 그 PD가 이쪽에 관심도 많고 열정도 있고 콤팩트하게 만들었는데요, 계속 한 슬롯으로 이런 식의 다큐를 할 수 있느냐는 내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리즈물은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 투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호 사장 : 다큐드라마로 하려면 돈을 더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내부 검토는 있었습니다.

최승호 사장 : 얼마 들었죠?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편당 1억 2천정도 입니다.

최승호 사장 : 드라마에 비해서는 적게 든 거죠.

박성현 위원 : 드라마는 큰 규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드라마화한 부분을 보면 애정이 가면서도 역시 소박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역사드라마 할 때 엄청난 전투 씬을 하는데 소소하게 몇 십 명으로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비슷한데요.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현 위원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연출하셨습니다.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MBC다큐프라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MBC다큐프라임>은 외주독립PD들이 기획하고 편당까지 해서 제작하고, MBC는 그것을 관리해서 방송할 수 있게 플랫폼 기능을 해줍니다. 다양한 기획안이 접수되지만 방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 판단을 거쳐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한 프로그램을 제작지원을 받아 독립제작사들이 제작하게 됩니다. 정규 슬롯은 아닙니다. 기획이 통과되고 편당이 성공한 경우에만 편성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저희들의 경험이나 관리 역량을 투입해 좋은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현 위원 : 질문 덧붙여도 될까요? 이번 다큐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한 건데요, 이것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알지 못하는 현대사임에도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독립 다큐계에서는 많이 다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을 다룬 <민들레> 다큐가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대상을 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독립 다큐계에서 화제성 높고 잘 만든,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다큐들을 편성할 수도 있나요?

이근행 시사교양본부장 : <MBC스페셜>이라는 다큐슬롯이 작년, 제작년에 걸쳐서 부진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들, 다양한 지향성을 갖는 PD들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작년부터 변해가고 있는 방향은 좀 더 규모 있는 시리즈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큐드라마로 하는 것도 하나의 시리즈 역사물일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대물, 역사물도 큰 패키지 시리즈물로 하면 외부 다큐멘터리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규정 위원장 : 이어서 박준우 국장님.

박준우 보도제작국장 : 애정과 관심을 담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수원 위원님께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두 진행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멘트만을 하고 있을 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찾아볼 수 없다면서, MC에게 지급되는 비용과 전체 제작비를 밝혀줄 수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진행자는 방송이 처음 시작된 2018년 2월부터 공동 사회자로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둘의 진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자들 상대로는, 기자들이 탐사 취재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점을 유념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매끄럽게 핵심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제작에 관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프리랜서이신 분들의 출연료는 회사와 당사자 개인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이것은 출연자도 마찬가지고 제작에 참여하신 작가 분들도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은 계약 쌍방의 신의에 어긋나는 면이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최근에도 KBS와 교통방송을 상대로 국회에서 출연료 요구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의 제작비는 회사경영의 중요한 지표의 하나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영업 비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비 내역을 따로 공개한 선례를 찾긴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전달해서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토론>(10/22) 20주년 특집 ‘홍준표 대 유시민 공정과 개혁을 말하다’ 편과 관련해 시의성과 함께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공약수를 찾아가는 토론 프로그램 고유의 미덕을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시민 패널의 질문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격려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논객 역할로 출연한 일부 패널의 질문에 차분함이 적어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촉박한 시간 내에 자신의 질문을 소화해야 했던 프로그램 흐름이 강박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 내용에 유념해서 더 나은 방송을 만들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원 위원 :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공동MC 김의성 씨,

주진우 씨가 MC 이외의 다른 역할도 하고 있나요?

박준우 보도제작국장 : 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전에 회의를 할 때 같이 참여하면서 대본도 상의를 하고, 때로는 아이টে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씨의 경우에는 취재에서 자기 나름의 역할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취재에 관해서 자신의 취재망을 가동하기도 합니다. 또 본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런 과정을 통해 공동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희 위원 : 많은 시청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두 진행자가 방송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만담가처럼 두 사람이 '맞다, 맞다'하고, 의견이 나뉘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연스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박준우 보도제작국장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면에 나오는 역할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의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 매 주 아이টে들이 간단하지 않은 내용이 많은데요, 취재에 있어서는 협업이 필요하고 주진우 씨도 본인의 취재망으로 도움을 줍니다.

박성현 위원 : 사실은 저도 오수원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팬인데요, 주진우 기자가 다른 식으로 취재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그 두 분의 MC역할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편파적으로 느껴지고 내용은 별로 없고 감정적으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휘휘 끌어나가는 느낌 외에는 주요내용이 별로 없게 느껴집니다.

정석희 위원 : 서로 의견이 다른 시청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을 때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우 보도제작국장 : 외부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기자들이 취재해 온 내용이 VCR로 들어가고 스튜디오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실제 편집하다 보면 항상 분량이 넘쳐서 줄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성이나 대담하는 형식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이어서 박성제 보도국장님 답변해주시죠.

박성제 보도국장 : 김수정 위원님께서 혐오표현 쓰는 정치인 발언의 문제와 함께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뉴스데스크>(10/28)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 소식을 중요하게 전한 이유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방송사들은 이 뉴스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지만 혐오표현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취재부서 및 편집회의의 공통된 문제의식의 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성적 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수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의 사연을 담은 ‘소수의견’, ‘당신이 뉴스입니다’라는 코너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코너라고 말씀드릴 만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계속 MBC가 모범적으로 혐오표현 혹은 혐오조장 발언 등에 관한 적극적인 보도를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양현석 YG대표 수사상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이 올 초부터 줄곧 이어온 보도가 버닝썬이라는 대형 클럽의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특종으로 시작해서 인권사회 팀 젊은 기자들이 버닝썬의 주주들, 승리, 승리와 함께 카톡방을 공유한 정준영씨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이 이슈가 다시 동남아 투자자에 대한 성 접대 배후에 양현석 씨가 있다는, 나름대로 취재한 부분이 거의 특종성으로 계속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보도라고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재기자들이 ‘양현석 씨가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도 촉구합니다. 젊은 기자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인 것이 또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신 여성분들이 소위 말하는 물뽕, 그 특징이 이것에 취하면 CCTV에서는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이지만 마치 서로 남녀가 원해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당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을 발의한 의원들도 생기고 해서, 인권사회 팀 기자들이 올해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보도로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위원께서 보시기에 과한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배경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봐도 조금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도 있는데요, 소환 정도나 잠깐 조사받거나,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전달해서 배경과 본질을 꿰뚫는 보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운여진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셨지만 인권사회 팀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적폐 및 경찰, 검찰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오늘 다른 국장님들이 여러분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안혜란 국장님, 라디오의 새로운 변신이나 화제되는 이슈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안혜란 라디오국장 : 최근 장성규 씨가 <굿모닝FM> 김제동 씨 후임으로 들어왔는데요,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 유튜브와 같이 생방송으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스타라서 그런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웃음)

이규정 위원장 : 장재훈 국장님, 젊은 시청층에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죠?

정석희 위원 : 지난달에 굉장히 좋은 의견서를 냈는데요.

장재훈 드라마국부국장 :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2049와 어린 시청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근황을 말씀드리면 드라마가 워낙 예산을 많이 쏟고, 어떻게 보면 투자 경비만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정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잠시 멈춘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월화·수목으로 갈지, 수목·금토로 갈지 편성을 고민 중입니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선택과 집중으로 드라마의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 일일드라마 <모두다 쿵따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시청이유는 그 시간대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뭔가 편성시간대가 애매해서 타겟층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보다가 준비를 못하고, 주부들은 드라마 보다가 남편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를 타겟층을 정해서 모든 가사를 종료한 한가로운 주부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아예 옛날처럼 저녁에 릴렉스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시 50분이라는 시간은 애매합니다.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훈 드라마국부국장 : 7시 50분부터 방송하고 있고, 현재 아침연속극이 남아 있는 것은 SBS랑 두 곳인데요, SBS는 8시 45분에서 50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최승호 사장 : MBC는 그 시간대에 오래 해왔죠.

이선태 편성실장 : 과거 아침드라마는 주부들이 아이는 학교로, 남편은 회사로 보내고 난 후 편안히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8시 이후, 8시 30분 이후 시간대가 고정시간대였는데요, 2000년대 초에 편성국에서 시청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MBC 아침드라마가 그때 다른 채널하고 겹쳐 있으니, 우리가 시간대를 7시 50분 정도로 옮긴다면 어떨겠느냐, 조사를 했을 당시 생각보다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시 50분으로 편성을 옮겼고, 그 결과 예전에는 시청률이 거의 20% 정도까지 기록하며 MBC에 효자노릇을 하던 기간이 꽤 됩니다. 요즘은 채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력도 약화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별적인 편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개편이후 편성은 어떻습니까?

이선태 편성실장 :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지만, MBC가 그냥 플랫폼이 아니고 콘텐츠 기업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편성표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습니다. 올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황승욱 국장님, 내년에 도쿄올림픽도 하는데 스포츠 쪽에 새롭게 기획한 내용이나 방향을 말씀해주시죠.

황승욱 스포츠국장 : 올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없어서 방송이슈가 없던 해인데요, 다행히 류현진 선수가 계속 잘 해줘서 괜찮았고, U-20월드컵이 결승전까지 선전하며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류현진 선수 팀 LA다저스가 일찍 포스트 시즌에서 탈락하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도 4차전으로 끝나면서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평양에서 한국남자축구 A매치와 월드컵 예선전이 있던 것도 북한 측에서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고요, 마무리가 잘 안됐습니다.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있어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MBC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MBC스포츠탐험대'인데 벌써부터 기획취재물을 올리고 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타사보다는 시청률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네,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윤미현 국장님.

윤미현 시청자심의국장 : 먼저 11월 조치사항과 제작진 피드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박성현 위원님께서 <편애중계> 홈페이지에 왜 시청자의견란이 없냐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정규방송으로 편성되면서 시청자의견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석희 위원님께서 MBC가 영리하게 프로그램을 홍보하면 좋겠다, 여러 프로그램에 나눠서 출연시키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셨고, 아까 라디오와 TV의 크로스 미디어 홍보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번에 드라마 <두 번은 없다> 방송을 할 때도 라디오와 협업했습니다. 광동연 씨가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 출연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라디오본부에서 잘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놀면 뭐하니?>가 독특한 홍보를 했는데요, MBC내의 홍보가 아니라, 다른 채널과의 크로스 채널 홍보를 했습니다. 뽕포유의 유산슬 데뷔를 앞두고 KBS <아침마당> '명불허전'에 출연했고요, TBS <배칠수, 박희진 9595쇼>에도 출연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 홍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드립니다.

박성현 위원님께서 <MBC스페셜> 다시보기 코너가 잘못되어 있었다, 827회 날짜가 11월 14일인데 11월 7일로 잘못 표기되었다고 하셔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윤여진 위원님께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예산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인터뷰가 좋았다, 예산문제는 계속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제작진이 피드백을 보내와 알려드립니다. 윤여진 위원님께서 들으신 방송은 9월 11일 방송인데요, 그 당시 이미 가을개편에서 예산 코너를 만들기로 논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개편에 '세금 구멍을 막아라' 라는 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소장이 출연해서 맹활약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예산, 군수 일가가 빨대 꽂고 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실태', '정부예산안 심사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위원님의 칭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라살림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보내 왔습니다.

MBC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시사교양본부에서 이번에 세 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밝히는 작자들>, <공유의 집>, <우리 지금 만담>이라는 3개의 프로그램인데요, 시청자위원님들께서 챙겨보실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밝히는 작자들>은 숨겨왔던 일기를 함께 들여다보는 힐링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공유의 집>은 스타들이 각자 자기 물건을 한 집에서 공유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해서 느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만담>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시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시사교양본부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의견란 잊지 마시고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위원 : ‘세금 구멍을 막아라’는 언제부터 했나요?

윤미현 시청자심의국장 : 가을개편에 시작했습니다.

안혜란 라디오국장 : 이 전에 두 분의 패널이 각자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때 하승수 씨가 와서 세금이 새는 것을 계속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개편하면서 아예 그것으로만 해서 패널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었죠,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 시청자심의국장 : 시청자센터로 들어온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본부장님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민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주요민원사항이 6개가 들어왔는데요, 그중 뉴스가 4개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2개입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시면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빼달라’는 민원입니다. 제작진은 공익목적으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합의가 안 되어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갔지만 중재인이 나오기 않아서 이 사안은 자동으로 기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경우에 ‘특정 지자체 회의장면이 나왔다’는 민원인데요, 회의장면 자체가 특정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풀샷이고, 데스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장면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드렸습니다.

10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7개가 들어왔는데요, 5개는 뉴스 관련이고 2개는 예능 관련 입니다. <뉴스데스크> 경우는 해결이 됐고, 보시면 예능은 출처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고요, 만약 제작진과 해결이 안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제작진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뉴스투데이>는 민원에 대해 다 확인하고 기사를 썼다고 데스크가 판단하여, 기사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정 위원장 : 다음 달 12월 20일, 올해 마지막 시청자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사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승호 사장 : 그동안 저희들이 애를 쓰고 시청자위원님들도 가르쳐 주셔서 여러 측면에서 콘텐츠의 질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향력 지수를 조사했는데 <PD수첩>이 타사 포함해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3위를 했고, <뉴스데스크> 5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도 TOP10에 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조사한 것인데요, 영향력 지수면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유시민, 홍준표 백분토론 같은 새로운 기획을 조만간 KBS에서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한다는데 저희들이 해서 꽤 성공적이었고, MBC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11/19)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형식에 대해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도로서의 가치는 충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에 새롭게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번 경험으로 교훈을 얻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고민해 온 부분이 드라마인데요,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 드라마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드라마는 특히 내부에서 기획한 것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경우들이 꽤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검법남녀> 시즌 2와 <어쩌다 발견한 하루>도 내부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에서 기획한 좋은 작품들이 MBC에서 많이 방송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회에, 특히 젊은 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의 특권 구조에 대해서 절망하는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강한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MBC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계속 질책해 주시면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규정 위원장 : 저희 시청자위원들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평과 의견을 제시하고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